

견 각도에 관한 연구

최 인 려 · 방 혜 경*

성신여자 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Shoulder Angle

In-Ryu Choi · Hey-Kyong B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 Shin Wome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 Shin Women's University*

(2003. 1. 23. 접수)

Abstract

In order to design a good ready-made cloth,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body size but also morphological factor. However, most dissatisfaction of customer is focusing on the size of ready-made cloth which is graded with elements of body size. Various researches on body type have been doing but the study on part of body type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tudy on whole body typ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relationship of shoulder angle between value in pattern and real measured value after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these two values.

Key words : Shoulder Angle(견각도)

I. 서론

현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성복이 보편화 되어있다.

대량생산에 의한 의복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보다 신체에 적합하도록 치수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면서도 신체기능에 순응한 의복이 생산 되어져야 한다.

의복의 치수는 곧 신체치수를 의미하는데 같은 치수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형태적 인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의 크기 요소만으로 그레이딩 된 기성복의 치수는 소비자의 불만족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복의 설계를 위하여서는 인체의 형태적 인자의 파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인체의 체형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체형 연구에 비해 부분 체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부분체형 중 견부의 경우 처진 어깨, 보통의 어깨, 솟은 어깨의 유형으로 나누어짐으로 체형에 따른 견각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복 제작을 위한 평면 제도의 경우 가슴둘레 치수로 산출된 일률적인 견 각도를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원형에서의 견각도와 실제 계측된 견 각도를 비교 분석하여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인체 계측

1) 계측대상

계측대상은 서울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에서 만 24세의 여대생으로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계측방법 및 항목

계측방법은 마틴 계측기를 사용하여 직접계측 방법으로 계측하였으며, 계측항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를 계측하였다.

견각도의 측정은 인체각도계를 사용하여 피시험자의 오른 쪽 어깨를 측정 하였다.

2. 기본 원형의 제작

기본원형은 장촌 식 제도 법에 따라, 실 측정 치수에 의한 원형과 1997년도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중 18~24세 성인 여성의 평균치수에 의한 원형, 두 가지를 제작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인체 계측

각 계측항목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 길이, 견 각도에 대한 계측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실제 계측 결과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대 값	최소 값	최대 빈도 치
					n=119
가슴둘레	83.73	4.57	96	69	80
허리둘레	67.41	4.58	82	58.8	65
엉덩이둘레	92.78	3.65	104	85	91
등 길이	39.48	2.4	45	32.5	39
견각도	20.24	4.07	30	11	18

가슴둘레는 평균이 83.73cm, 표준편차는 4.57이고 최대 빈도 치는 80cm이었다. 허리둘레는 평균이 67.41cm, 표준편차는 4.58, 최대 빈도 치는 65cm로 조사되었다.

엉덩이 둘레는 평균 92.78cm, 표준편차는 3.65, 최대 빈도 치는 91cm로 나타났다. 등 길이는 평균 39.48cm, 표준편차는 2.4이고 최대 빈도 치는 39cm이었다. 견 각도는 평균이 20.24°, 표준편차는 4.07이며 최대 빈도 치는 18°로 나타났다.

실제 계측치를 국민 표준 체위 치수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실 계측 치수와 국민 표준 체위 치수와 비교 결과

항목	실 계측		국민표준체위		평균 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슴둘레	83.73	4.57	81.7	5.1	2.03
허리둘레	67.41	4.58	65.6	4.9	1.81
엉덩이둘레	92.78	3.65	89.2	4.4	3.58
등 길이	39.48	2.4	37.7	2.5	1.78
견각도	20.24	4.07	21.4	3.6	-1.16

〈표 3〉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 n=119

		견각도	허리둘레	가슴둘레	등길이	엉덩이둘레
Pearson Correlation(r)	견각도					
	허리둘레	.310**				
	가슴둘레	.441**	.548**			
	등길이	.134	.083	.212**		
	엉덩이둘레	.354**	.702**	.703**	.120	

*p<.05, **p<.01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 측정 치수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 길이 항목에서 국민 표준체위보다 평균값이 크게 나타난 것에 비해 견 각도는 국민표준체위 치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3〉은 각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견각도와 다른 측정항목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등 길이를 제외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 p<.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상반신 둘레 항목 치수와 견각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원형 제작

실 측정치수를 이용한 원형과 국민표준체위치수를 이용한 원형의 견 각도를 측정한 결과 두 원형 모두 20°의 견 각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원형제작 시 필요치수인 가슴둘레의 치수와 상관없이 견 각도는 일률적으로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기본원형 상의 견 각도는 20°이었으며, 실측된 견 각도의 평균값도 20.24°로 평균 값 만으로는 원형상의 견각도와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측된 견 각도의 최대 빈도 치는 18°로 원형 상의 각도보다는 약간 솟은 어깨의 유형을 보이고 있었으며, 최대치는 30°이고 최소치는 11°로 개인 편차가 심한 것이 나타났다.

또한, 원형에서는 가슴둘레 치수의 증가와 감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견 각도가 같은 각도를 보이는데 반하여, 실측된 자료에서는 가슴둘레와 견 각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가슴둘레가 크면서 솟은 어깨를 갖고 있는 경우 어깨 부위의 부적합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민 표준체위와 비교하여 볼 때, 나머지 항목들의 치수가 실 측정치가 더 큰데 반해, 견 각도는 작게 나타나 솟은 어깨의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견부 체형의 유형화를 통하여 치수와 체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형의 조정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정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좀 더 광범위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견 각도뿐 아니라 견부의 방향성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업 진흥청(1997). 국민 표준채워 보고서.
- 김혜경 외(1997). 「피복인간공학 실험설계 방법론」. 서울: 교문사.
- 나미향 외(2000). 「산업패턴설계」. 서울: 교학연구사.
- 남윤자(1983). 실루엣에 의한 한국 여성의 체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정(1994). 성인여성 체형분류 및 의복원형 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부자(1997). 「피복인간공학」. 서울: 교문사.
- 정운자(1997). 「의복 구성학」. 서울: 형설출판사.